

큰스님 수행한담

“세상사 인과법으로 풀면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19) (佛言)觀天地 念非常 觀世界 念非常 (불언)관천지 염비상 관세계 염비상

소아지자즉 유할설지한 '사람들이 재물과 색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마치 칼날에 물은 풀은 한 번

(20) (佛言)當念身中四大 各自有名 (불언)당념신중사대 각자유명

(23) (佛言)人繫於妻子舍宅 基於牢獄 (불언)인계어처자사택 심어뇌옥

(24) (佛言)愛欲莫甚於色 色之爲欲 其大 (불언)애욕막심어색 색지위욕 기대

'사람들이 처자식과 가정에 얽매어 는게 감옥에 갇힌것 보다 심하다.

'내 몸을 이룬 사대엔 각기 이름이 있지만 어디를 보아도 도무지 '나'라고 할게 없음을 마땅히 알라.

(21) (佛言)人隨情欲 求於聲名 聲名顯著

“향이 다 타고나면 재가 되는것 처럼 오욕칠정따라 명성 구해도 허깨비”

(불언)인수성복 구어성명 성명현저 身已故矣 신이고의

않다. 색에 대한 정과 사랑을 어찌 뿌리치고 멀리 도망쳐 나오라.

사람들이 오욕칠정을 따라 명성을 구하지만 그렇게해서 명성이 두드러져도 몸은 이미 없다.

(24) (佛言)愛欲莫甚於色 色之爲欲 其大 (불언)애욕막심어색 색지위욕 기대

(22) (佛言)財色於人 人之不捨 (불언)재색어인 인지불사

다행히 한가지이기 망정이지 만약 그같은게 둘만 되었더라도 하늘 아래 도덕을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혜명스님 (혜명정사 원장)

요즘 경제한파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거리로 방황하는 실직자들, 졸업을 앞두고 마땅히 일할 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사회초년생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생산현장 등 그 고통이 헤아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 1927년 경북 문경 생
47년 봉암사에서 청담스님 은사로 출가
66년 도선사 신탐학원 대교과 졸업
55년 범어사에서 통산스님께 구족계 수계
74년 서울 도선사 주지, 혜명양로원 이사, 청담종교대학교 이사
74년 불교사회문제연구소 이사장
93년~현재 서울 도선사포교당 혜명정사에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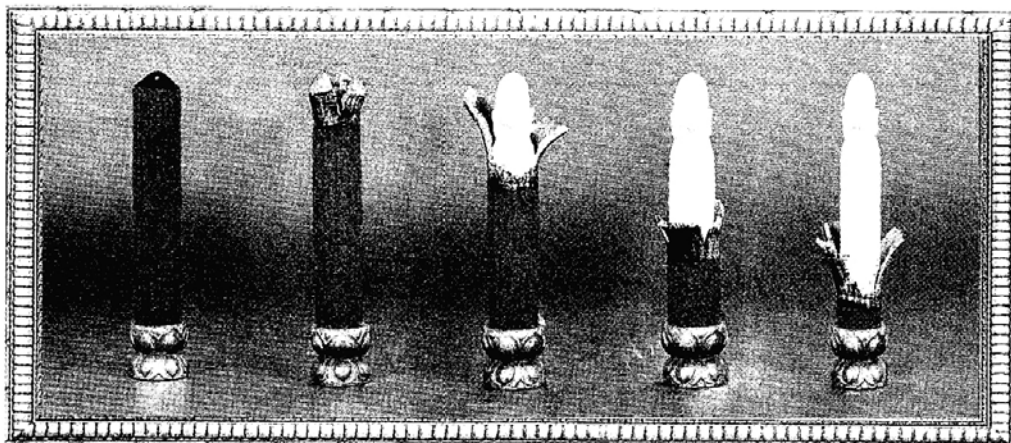
“해방직후 절대적 빈곤이었다면 현재는 상대적 고통을 겪고있죠 IMF도 업이니 풀고 녹이세요”

이란 따지고 보면 얼마나 귀한 인연이었습니까. 더구나 한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한 집안에서 한 술밥을 먹고 매일 조석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형제간의 인연은 얼마나 지중할 것이며, 나이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와의 인연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깊고 막중한 인연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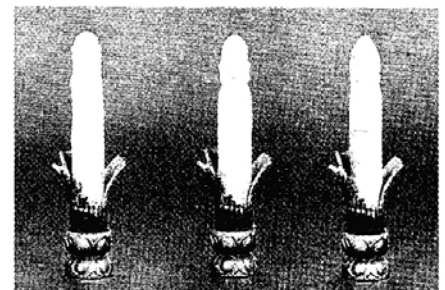
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법은 인연따라 생기고 모든 법은 인연따라 멸합니다. 만일 연기의 원리를 보면 모든 법을 볼 수 있고 모든 법을 볼 수 있으면 연기법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내가 출가 사문이 된데는 봉암사와의 인연이 컸습니다. 봉암사는 나의 출가 본사이자 내가 봉암사 아랫마을에 살았던 것입니다. 속가 모친이 내 나이 어릴때 돌아가셔서 그 충격이 컸습니다. 학교 가고,올때마다 모친의 산소에 절을 하면서 봉암사를 물고거리며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

의장등록 : 98-19350
상표등록 : 98-28434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향이 원추형으로 금색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1시간 30분 정도이며,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석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전부 타고 난 다음에는 향 연기도 소멸되고 타고난 재의 모습은 예술형상으로 남으며,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향과 길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고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제일 돛 법회와 각종 기념행사, 기도에서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원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4-10

Tel: (051) 466-3731~2 Fax: (051) 466-3733

권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권

전국판매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서울·경기/대전·충청남북/광주·전라남북/부산·경남/대구·경북/강릉·강원/제주